



(왼쪽부터)이슬비, 제갈성렬, 조해리 해설위원.



/SBS 전이경 해설위원(왼쪽)과 배기완 캐스터.



/SBS 피겨 스케이팅 박민정(왼쪽)과 김해진 해설위원이 지난 8일 2018평창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차준환의 훈련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쇼트트랙 조해리·컬링 이슬비·피겨스케이팅 박민정

前 국대들의 입담자랑... “보는 재미 더해요”

방송사별 다른 중계 분위기에 관심 베테랑의 시선으로 경기 재미 배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지난 9일 개막한 가운데, 대회 이틀째인 10일에는 남자 쇼트트랙 임효준이 대한민국에 첫 금메달을 안겼다.

SBS, KBS, MBC 등 각 방송사는 하루 동안 예선과 준결승, 결승까지 연이어 치러진 남자 쇼트트랙 1500m 경기를 생중계로 보여주며, 박진감 넘치는 현장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했다.

이 가운데 3개 방송사의 각기 다른 중계 분위기에 시선이 쏠린다. 특히 쇼트트랙과 피겨 등 한국의 '효자종목'을 책임졌던 인기 국가대표, '국대요정'으로 불리던 이들이 해설위원으로 등장해 반가움을 더했다.

쇼트트랙 남자 500m, 1500m, 여자 500m, 3000m 등 경기가 치러진 지난 10일에는 조해리 해설위원이 SBS 중계의 한 축을 담당했다.

이날 조해리 해설위원은 중계석을 벗어나 현장 리포터로 변신, 경기 현장을 직접 찾아 선수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관중석을 배경으로 선 조 해설위원은 한국팀의 선전 때마다 큰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조 해설위원은 선수시절 잦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썼다. 2011년 세계선수권종합 우승, 2014년 소치올림픽 계주 3000m 우승 등 굵직한 타이틀을 최고령에 따냈다.

SBS의 또 다른 주역도 있다. 배기완 캐스터와 호흡을 맞췄던 전이경 해설위원이다. 두 사람이 진행한 남자 1500m 결승, 여자 쇼트트랙 계주 준결승전 경기 중

계의 시청률은 각각 18.5%, 17.7%(닐슨 코리아 수도권 기준)를 기록, MBC(13.8%, 13.6%)와 KBS(16.7%, 16%)를 제치고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다. 분당 최고 시청률은 20%에 육박하기도 했다.

전 해설위원은 '올림픽 4관왕'에 빛나는 금메달리스트 출신답게 선수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관전포인트'를 제대로 짚어내 흥미를 더했다. 또 최민정, 임효준의 기록을 제대로 짚어낸 '즉집게 예언'으로도 화제를 모았다.

2014년 소치올림픽을 기점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한 컬링 종목은 이슬비 해설위원이 책임졌다. 이 해설위원은 첫 중계에도 불구하고 명쾌한 설명, 과감한 감탄사로 '단호박 해설'이란 수식어까지 꿰찼다.

이 해설위원은 트랜티노 동계유니버시아드 여자 단체전 은메달, 아시아태

평양컬링선수권대회 여자 단체전 금메달, 중국 오픈 금메달 등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은퇴했다.

피겨에서는 '피겨요정' 박민정과 김해진, 진선유와 방상아가 해설위원으로 나섰다.

박민정 해설위원은 KBS에서 스노보드 선수 출신 박재민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 지난 2010년 밴쿠버 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13위에 올랐던 박 해설위원은 2015년 은퇴한 뒤 KBS에서 해설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박 해설위원은 현역 시절 세계 정상급 기량을 뽐냈던 만큼 깔끔한 해설 실력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또 다른 '피겨요정' 김해진은 MBC에서 이재은 캐스터와 호흡을 맞췄다. 김해진 해설위원은 "방송 3시 피겨 중계진 중 가장 젊은 조합"이라며 "가장 최

근까지 빙판 위에서 있었던 만큼 차별화된 최고의 중계방송을 안방에 전달하겠다"는 포부를 전하기도 했다.

김 해설위원은 어린 시절부터 피겨스케이팅 유망주로 불리던 인물이다. 만 12세였던 2010년에는 국내 최고 권위 대회인 전국종합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으며, 당시 김연아 이후 처음으로 초등학생 신분이 이 대회 정상에 오른 것으로 화제를 모았다. 10대 초반 트리플 5종 점프를 완성할 만큼 빠른 성장세를 보였던 김 해설위원은 2014년 소치올림픽에 출전해 기량을 뽐냈으며, 이후에도 꾸준히 대회에 출전하다 최근 스케이팅을 벗었다.

해설위원으로 변신한 전 국가대표 선수들은 베테랑의 시선으로 경기를 바라보며, 경기를 보는 재미를 배가시킨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시와 사진이 있는 아침

앵이눈꽃(화약산)

야기 새들의 합창
그렇게 새봄은 오고...

/고흥곤 작

“넘어져도 1등” 女쇼트트랙, 대처능력 빛났다

반칙·넘어졌을 경우 등 상황 훈련 넘어진 순간 빠른 대처로 위기 넘겨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이 3000m 계주에서 '세계 최강' 한국 쇼트트랙의 저력을 제대로 과시했다. 극한 상황까지 철저히 대비했기에 가능했던 결과다.

지난 10일 오후 강원도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준결승이 열렸다.

이 경기에서 한국팀의 세 번째 주자로 나선 막내 이유빈(서현고)은 배턴 터치 직전에 넘어졌다. 전체 27바퀴 중 23바퀴가 남았던 상황이었으나, 나머지 선수들과 반 바퀴가량 차이가 벌어지면서 관중석에선 탄식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한국팀은 노련한 경기력과 압도적인 속도로 타 국가 선수들을 차례로 제치고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사실 쇼트트랙은 변수가 많은 종목이다. 선수들이 레인 구분 없이 한 데 뒤엉켜 자리를 다투기 때문에 반칙으로 인한 실격도 많고 넘어지는 일도 잦다.

혼자만 잘 달린다고 끝이 아니다. 만약 다른 선수로 인해 함께 넘어질 경우, 결승전까지는 구제 받을 수 있지만 결승에선 이조차도 안고 가야 한다. 따라서 넘어지지도, 부딪히지도 않는 게 최선이다.

쇼트트랙 대표팀은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경기 중 빙판 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가정하고 연습했다. 심석희는 지난 5일 강릉선수촌에 입촌하면서 계주 연습 상황 등에 대해 “조금 더 극한 상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의 이유빈(왼쪽)이 지난 10일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준결승에서 넘어지자 다음 주자인 최민정이 교체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을 만들어 훈련 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선수가 반칙을 시도하거나 우리 선수가 넘어질 경우, 또 선수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레이스를 이어갈지에 대해 꼼꼼히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준비한 위기 대처 능력은 이번 준결승에서 빛을 발했다. 첫 주자로 나선 심석희(한국체대)가 스타트를 준비할 때, 세 번째 주자인 이유빈은 바로 뒤에서 준비했다. 만약 스타트 과정에서 넘어질 경우 곧바로 터치해서 이어 달릴 준비를 한 것이다.

이유빈이 넘어진 순간에도 대표팀은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상황을 타개했다. 이유빈의 다음 주자인 김예진(한국체대 입학예정)은 일찌감치 안쪽 코스에서 터

치를 기다리며 돌고 있었기 때문에 최민정(성남시청)이 대신 달려왔다.

최민정은 이유빈의 손을 터치한 후 곧바로 질주했고, 빠르게 앞 그룹을 따라잡았다. 11바퀴를 남기고서 최민정은 3위로 올라섰고, 김예진과 심석희가 인코스를 공략해 1위까지 추월에 성공했다.

극한의 상황에서 대표팀은 4분6초387의 올림픽 신기록까지 기록했다. 비록 준결승 2조에서 된 중국이 4분5초315로 기록을 경신하긴 했지만 한 차례 넘어진 상황에서 거둔 기록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

김예진은 경기가 끝난 뒤 “그동안 많이 연습했던 상황”이라며 “대표팀은 여러가지 상황을 만들어 준비했다. 자연스럽게 대처할 것 같다”고 했다. /김민서 기자

오늘의 날씨

2월 12일

음력 : 12월 27일

수도권 날씨

-9 ~ -2°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7:25 | 해질 / 18:08

연천 -12/-2

동두천 -12/-1

가평 -12/-2

파주 -14/-2

서울 -9/-2

양평 -12/-1

인천 -7/-2

수원 -9/-2

용인 -9/2

평택 -10/-1

백령도 -6/-3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